

• 君舟民水 : '백성은 물, 임금은 배이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군주민수(君舟民水)'는 순자(荀子) 왕제(王制)편에 나오는 사자성어다.

韜光養晦 :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는 의미로,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덩샤오핑 시기 중국의 외교방침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인다. 성어(成語)로서 도광양회는 청조(淸朝) 말기에 사용되었다. 이후 중국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끈 덩샤오핑이 중국의 외교방향을 제시한 소위 '28자 방침'에 사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다.